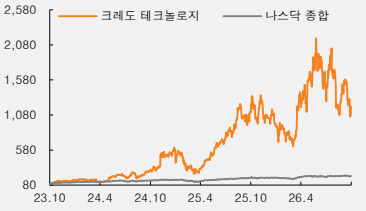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0.28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하향)	▼ USD 270
현재주가(26/10/27)	USD 167.43
상승여력	61.3%

나스닥 종합(p)	26,477.81
EPS 성장률(26F,%)	-
P/E(26F,x)	-
배당수익률(%)	0.0
시가총액(십억USD)	31.47
시가총액(조원)	41.62
상장주식수(백만주)	188.0
60일 평균 거래대금(백만USD)	1,477.59
52주 최저가(USD)	87.81
52주 최고가(USD)	302.52

(%)	1M	6M	12M
절대주가	-20.6	-7.2	8.0
상대주가	-18.9	-12.8	-3.5



[글로벌 AI 인프라]
장다현
dahyun.jang@miraeasset.com

CRDO US · 글로벌 테크 · 미국

크레도 테크놀로지

구리 불패

FY2Q27 프리뷰: 800G AEC 견조, 신제품 효과는 하반기 본격화

FY2Q27 매출액은 5.30억 달러(+97.7% YoY), Non-GAAP 영업이익은 2.58억 달러(+107.8% YoY, 영업이익률 48.7%)로 전망한다. 800G AEC 출하가 견조한 가운데 광 제품과 1.6T AEC 매출은 하반기에 집중돼 매출은 가이던스(5.25~5.35억 달러)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Non-GAAP 영업이익률은 48.7%로 전분기와 유사하겠으나, 신제품 출하 확대로 FY4Q27E에는 매출 증가율(+68.5%)이 영업비용 증가율(+22.9%)을 상회하며 53.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FY27 광 매출은 DSP, PIC, ZeroFlap 확대로 7.6배 증가한 6.9억 달러로, 전사 매출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리 채택 확대와 광 사업 성장 가속

단거리 구리 사용에 대한 기존 판단은 오히려 강화됐다. 메타는 비용, 전력 효율과 광 부품 공급 제약을 고려해 **랙 간 3~10m 연결에 AEC를 채택**했다. 고속화로 패시브 구리의 도달거리가 짧아지면서 AEC 수요는 800G에서 1.6T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 사업에서는 연결 신뢰성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했다. 메타에 따르면 교체형 광모듈 고장의 36%가 DSP 펌웨어와 관련돼 있다. 동사는 광 DSP, PIC와 링크 상태를 감시하는 ZeroFlap으로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CPO 전환도 3.2T 세대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FY27~28 광 제품의 성장 여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00달러에서 270달러로 10% 하향

12MF Non-GAAP EPS 8.44달러에 목표 PER 32.5배를 적용했다. 메타의 AEC 공급망 개방, 맥스리니어의 1.6T AEC 시장 진입과 ACC 표준화에 따른 경쟁 심화를 고려해 목표 PER을 기존 35배에서 2026년 평균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맥스리니어 제품은 아직 양산 전이며, 점유율 하락이나 ACC 대체로 AEC 매출이 약 15% 감소할 경우 FY28E EPS는 약 7%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구리와 광 사업의 동반 성장이 중장기 실적 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800G AEC 수요 확대에 광 제품의 신규 매출과 1.6T 전환이 더해지면서 FY27E와 FY28E 매출은 각각 88.3%, 5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속 연결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광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처 다변화, 높은 수익성을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결산기 (4월)	FY24	FY25	FY26	FY27E	FY28E
매출액 (억달러)	1.9	4.4	13.4	25.1	38.2
영업이익 (억달러)	-0.4	0.4	4.5	7.9	14.8
영업이익률 (%)	-18.8	8.7	33.3	31.6	38.9
순이익 (억달러)	-0.3	0.5	4.7	8.0	14.3
EPS (달러)	-0.18	0.29	2.51	4.04	7.06
ROE (%)	-5.1	7.8	22.9	21.2	24.9
P/E (배)	-	164.8	73.5	37.4	21.4
P/B (배)	5.3	12.8	16.8	7.9	5.3

주: GAAP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및 밸류에이션

FY2Q27 프리뷰

FY2Q27 매출액은 5.30억 달러(+97.7% YoY), Non-GAAP 영업이익은 2.58억 달러(+107.8% YoY)로 전망한다. 기존 고객향 800G AEC가 매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광 제품과 1.6T AEC의 기여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돼, 매출은 가이던스(5.25~5.35억 달러)에 부합할 전망이다. 신제품 매출 비중이 아직 낮아 Non-GAAP 매출총이익률은 가이던스(67~69%) 중간인 68.0%를 예상한다. 1.6T AEC와 광 제품 개발비 증가에도 Non-GAAP 영업비용은 가이던스 범위 내인 1.03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은 48.7%를 기록할 전망이다.

FY27 매출 성장의 핵심은 광 제품의 신규 매출 기여 확대다. 회사는 FY27 광 매출 6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으며, 광 DSP, PIC, ZeroFlap에서 각각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상한다. 당사 FY27E 광 매출은 6.9억 달러로 FY26 0.9억 달러 대비 약 7.6배 증가하며, 전사 매출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리 부문에서는 800G AEC가 기존 성장세를 유지하고, 1.6T AEC는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신규 제품 출하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도 예상한다. Non-GAAP 영업이익률은 FY1Q27 48.2%에서 FY4Q27E 53.4%로 5.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Non-GAAP 매출총이익률이 68% 내외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68.5%)이 Non-GAAP 영업비용 증가율(+22.9%)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광 제품 출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동시에 축소될 수 있다.

표 16. 크레도 실적 테이블

(백만 달러, 달러)

FY	1Q26	2Q26	3Q26	4Q26	1Q27	2Q27E	3Q27E	4Q27E	1Q28E	2Q28E	3Q28E	4Q28E	2026	2027E	2028E
매출액	**223**	**268**	**407**	**437**	**479**	**530**	**698**	**807**	**862**	**921**	**983**	**1,050**	**1,335**	**2,514**	**3,817**
YoY	*273.6%*	*272.1%*	*201.5%*	*157.0%*	*114.7%*	*97.7%*	*71.4%*	*84.7%*	*80.0%*	*73.7%*	*40.9%*	*30.2%*	*205.7%*	*88.3%*	*51.8%*
사업부별 매출															
제품	217	261	407	437	474	524	690	798	856	914	976	1,043	1,310	2,486	3,789
IP 라이선스	6	7	0	0	5	6	8	9	6	7	7	8	25	28	28
매출원가	**73**	**87**	**128**	**139**	**170**	**191**	**246**	**284**	**306**	**325**	**339**	**364**	**427**	**892**	**1,334**
매출총이익	**150**	**181**	**279**	**298**	**309**	**339**	**451**	**523**	**556**	**596**	**644**	**687**	**908**	**1,622**	**2,483**
매출총이익률	*67.4%*	*67.5%*	*68.5%*	*68.2%*	*64.5%*	*63.9%*	*64.7%*	*64.8%*	*64.5%*	*64.7%*	*65.5%*	*65.4%*	*68.0%*	*64.5%*	*65.1%*
영업비용	**90**	**102**	**129**	**142**	**188**	**202**	**213**	**224**	**226**	**241**	**257**	**275**	**463**	**827**	**999**
R&D	52	58	78	91	115	122	130	136	137	147	157	167	279	503	607
SG&A	37	44	51	52	74	79	84	88	89	95	101	108	184	324	392
영업이익	**61**	**79**	**150**	**156**	**121**	**137**	**238**	**298**	**330**	**355**	**387**	**412**	**445**	**795**	**1,484**
YoY	*흑전*	*흑전*	*471%*	*350%*	*99%*	*74%*	*59%*	*92%*	*174%*	*159%*	*63%*	*38%*	*1071%*	*79%*	*87%*
영업이익률	*27.2%*	*29.4%*	*36.8%*	*35.7%*	*25.2%*	*25.9%*	*34.1%*	*37.0%*	*38.3%*	*38.5%*	*39.3%*	*39.2%*	*33.3%*	*31.6%*	*38.9%*
순이익	**63**	**83**	**157**	**169**	**129**	**141**	**237**	**294**	**321**	**344**	**373**	**396**	**472**	**802**	**1,434**
EPS	**0.34**	**0.44**	**0.82**	**0.88**	**0.67**	**0.71**	**1.18**	**1.47**	**1.58**	**1.69**	**1.84**	**1.95**	**2.51**	**4.04**	**7.06**
Non-GAAP 영업이익	**96**	**124**	**202**	**217**	**231**	**258**	**364**	**431**	**457**	**489**	**530**	**563**	**639**	**1,284**	**2,039**
영업이익률	*43.1%*	*46.3%*	*49.6%*	*49.6%*	*48.2%*	*48.7%*	*52.2%*	*53.4%*	*53.0%*	*53.1%*	*53.8%*	*53.6%*	*47.8%*	*51.1%*	*53.4%*
Non-GAAP EPS	**0.52**	**0.67**	**1.07**	**1.16**	**1.20**	**1.29**	**1.80**	**2.12**	**2.19**	**2.34**	**2.52**	**2.68**	**3.46**	**6.33**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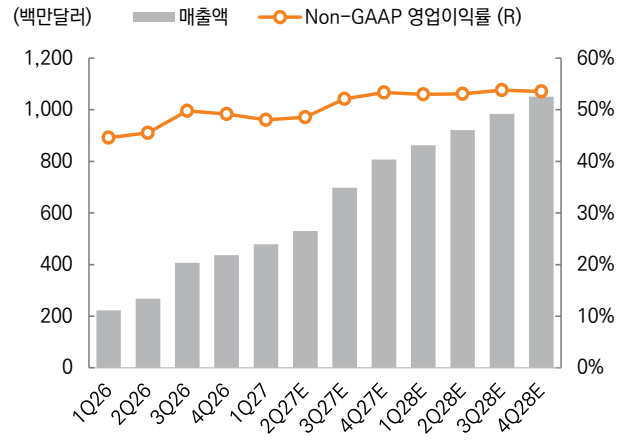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 17. 크레도 실적 추정치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달러)

	FY2Q27E			FY27E		
	당사	컨센서스	컨센서스 대비	당사	컨센서스	컨센서스 대비
매출	**530.0**	**551.5**	***-3.9***	**2,513.8**	**2,493.0**	***+0.8***
Non-GAAP 매출총이익률	68.0%	67.7%	*+0.3%p*	68.0%	67.7%	*+0.3%p*
Non-GAAP 영업이익	**257.9**	**258.1**	***-0.1***	**1,283.6**	**1,281.0**	***+0.2***
Non-GAAP 영업이익률	48.7%	46.8%	*+1.9%p*	51.1%	51.4%	*-0.3%p*
Non-GAAP EPS	**1.29**	**1.30**	***-0.4***	**6.33**	**6.3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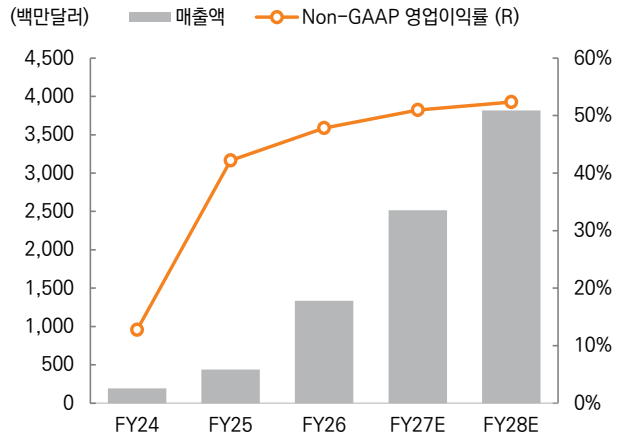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2.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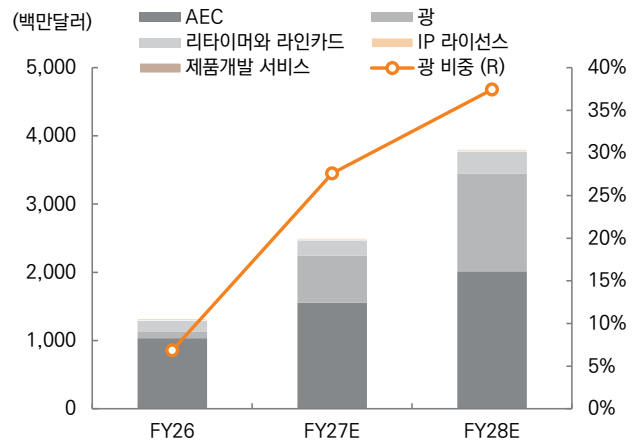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3.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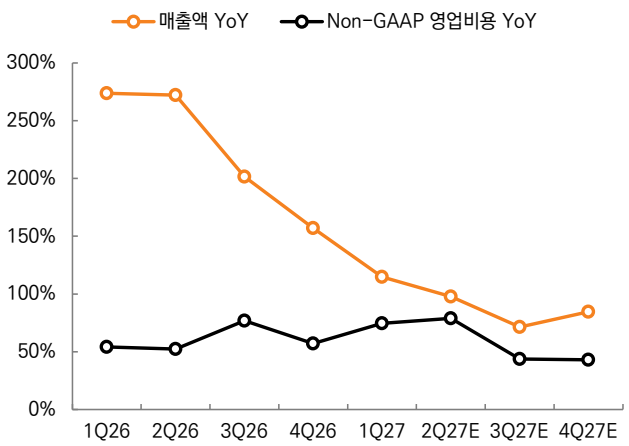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4. 제품별 매출 구성 및 전망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5. 매출 증가율과 Non-GAAP 영업비용 증가율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밸류에이션

목표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270달러로 10% 하향하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2MF Non-GAAP EPS 8.44달러에 목표 PER 32.5배를 적용했다. 목표 PER은 기존 35배에서 흑자 안착 이후인 2026년 평균 12MF PER로 조정했다. 해당 기간은 광 연결로의 대체 우려로 19.1배까지 하락했던 3월 구간도 포함한 수치다.

메타의 랙 간 AEC 공급망 개방과 맥스리니어의 1.6T AEC 시장 진입은 중장기 경쟁 변수다. 맥스리니어는 케이블 제조사에 칩을 공급해 시장 점유율 20~30% 확보를 목표하고 있으나, 관련 매출은 2027년부터 발생할 예정이며 양산과 고객 채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CC 표준화는 더 구조적인 변수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스코와 암페놀, TE커넥티비티 등 16개사가 참여한 ACC MSA에 동사는 빠져 있어, 칩부터 완제품까지 통합 공급하는 동사의 강점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1.6T ACC의 도달거리는 3.5m로, 메타가 AEC를 택한 3~10m 구간 대부분은 대체하기 어렵다. 점유율 하락이나 ACC 대체로 FY28E AEC 매출이 약 15%, 30% 줄 경우 FY28E EPS는 각각 7%,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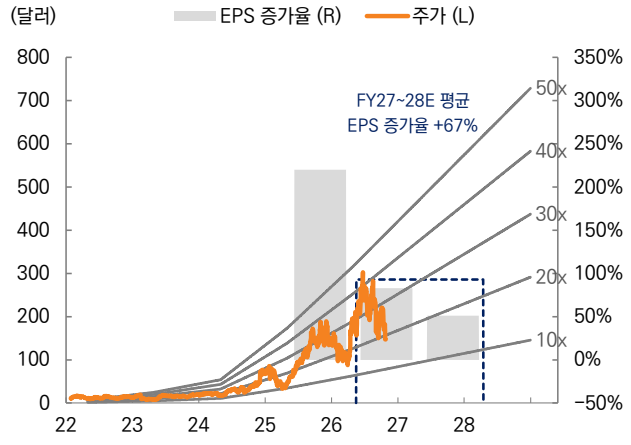
과거 마벨의 시장 진입(2022년, 2024년)에도 완제품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동사의 점유율이 유지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EC 점유율이 70%에서 60%, 50%로 하락할 경우 FY28E EPS는 각각 7%,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표 18. 크레도 목표주가 산출 테이블

구분	값	비고
12MF EPS ($)	8.44	Non-GAAP 기준
목표 P/E (x)	32.5	흑자 안착 이후인 FY26 12MF P/E 평균
목표주가 ($)	270	
현재주가 ($)	167.43	26.10.27 기준 종가
상승여력 (%)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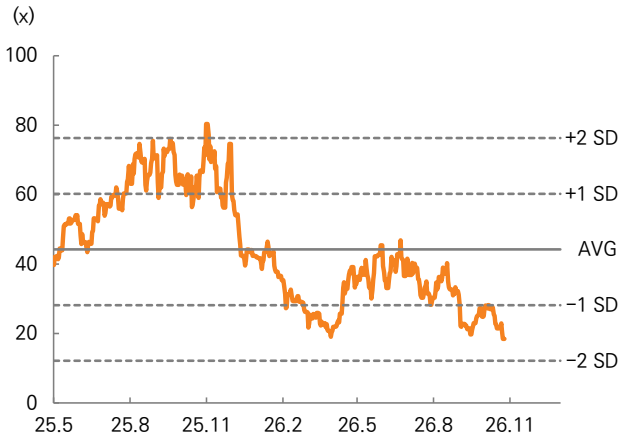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6. 크레도 12MF P/E 밴드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7. 크레도 12MF P/E 표준편차 밴드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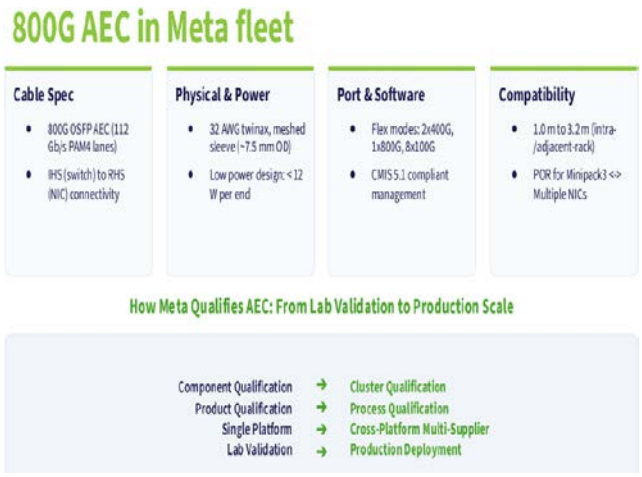
OCP에서 확인한 투자 기회

AEC 채택 확대, 고속화가 구리 연결 수요를 견인

메타는 3m 초과 10m 미만의 랙 간 연결에 AEC를 전면 채택하기로 했으며, 컴퓨트 트레이와 스위치 간 연결에도 AEC를 사용하고 있다(그림 88). 광 대비 낮은 비용과 전력 소비뿐 아니라 광 DSP 및 레이저의 공급 제약이 주요 배경이다. 단거리 연결에 구리를 활용하고 제한적인 광 부품을 500m 이상 장거리 구간에 우선 배분하는 전략으로, 동사의 주력인 AEC 수요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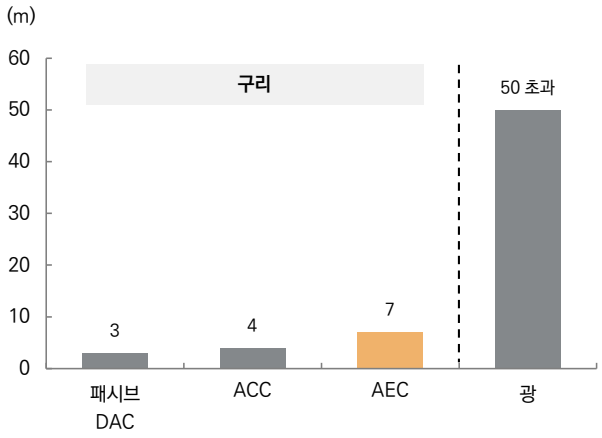
네트워크 고속화도 액티브 구리의 채택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델에 따르면 레인당 400G에서는 패시브 구리의 도달거리가 약 1m로 축소되며, 아스테라랩스는 랙 간 스케일업에서도 DAC와 ACC, AEC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89). LightCounting은 향후 5년간 액티브 케이블 시장이 수천만 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광 부품 공급 제약에 따른 단기적인 대체 수요에 더해, 전송 속도 상승에 따른 패시브 구리의 한계가 액티브 케이블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그림 88. 메타 800G AEC, 한쪽 끝 전력 12W 미만



주: 현재 플릿 배치 기준. 길이 1.0~3.2m(랙 안과 인접 랙), 112G PAM4 레인, Minipack3 스위치와 복수 NIC 간 연결. 검증 범위는 단일 플랫폼에서 복수 공급사, 랩 검증에서 양산 배치로 확대
자료: 메타(OCP 글로벌 서밋 2026, 현장 촬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9. 매체별 최대 도달거리, 구리 중 AEC가 최장



주: 아스테라랩스 제시 기준. 광은 AOC, LPO, NPO, CPO로 50m 초과. 메타는 랙 간 3m 초과 10m 미만 연결을 AEC로 결정
자료: 아스테라랩스(OCP 글로벌 서밋 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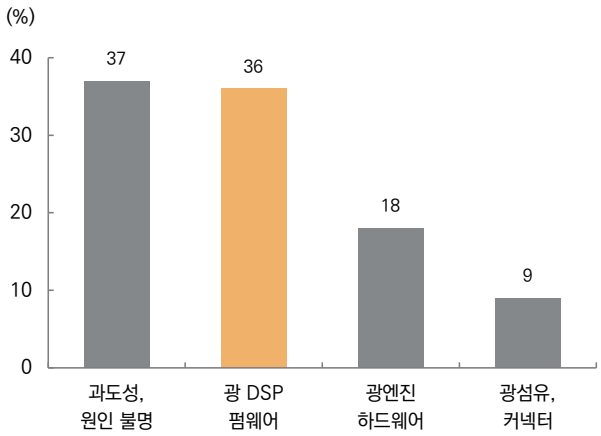
광 연결 신뢰성 강화, ZeroFlap의 신규 매출 기회

AI 클러스터의 대형화로 광 연결의 성능뿐 아니라 장애 감지와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오라클은 물리계층(L1) 링크 장애의 90%가 커넥터 오염에서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메타는 교체형 광모듈 고장의 36%가 광 DSP 펌웨어와 관련되고 약 3분의 1은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일시적 장애라고 설명했다(그림 90). 연결 수가 증가할수록 장애 진단과 복구에 필요한 운영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동사는 오라클의 광 신뢰성 사양 1.0 개발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하나로, 링크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ZeroFlap을 통해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그림 91). 광 DSP와 PIC를 포함한 제품 포트폴리오도 광 사업 확대의 기반이다. LightCounting은 이더넷 광모듈 시장이 2026년 438억 달러(+120% YoY)에서 2027년 6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의 실적 기여는 광 시장 성장과 함께 개별 제품의 고객 채택 확대에 달려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전력 광 연결 기술 확산에 따른 DSP 수요 감소가 변수다. 다만 LightCounting은 2031년에도 800G 광모듈의 89%, 1.6T의 43%가 DSP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CPO와 NPO 전환도 2029~2030년 출하가 시작되는 3.2T 세대에서 본격화될 전망으로, FY27~28 광 사업의 성장 여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그림 90. 메타 플러거블 광 고장 원인, 광 DSP 펌웨어 36%



주: 리타임드 플러거블 광(FRO) 기준. 51.2T CPO 비교 시험(약 180만 시스템 시간)의 플러거블 대조군
자료: 메타(OCP 글로벌 서밋 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1. 오라클 광 신뢰성 사양 1.0, 크레도 포함 7개사 구현



주: 오라클, 크레도, 마벨, 아리스타, 브로드컴, 이옵토링크, 코히어런트
자료: 오라클(OCP 글로벌 서밋 2026, 현장 촬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6T AEC 경쟁, 양산 검증 역량이 차별화 요인

1.6T AEC 시장의 공급사 다변화에도 고객의 검증 요건은 신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타는 수백만 개의 AEC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신호 품질보다 펌웨어에 따른 상호운용 문제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일부 결함은 5,000~7,000회의 리셋 이후에야 발견됐으며, 동일 품번에서도 생산국에 따라 신호 품질이 약 5dB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됐다. 칩과 펌웨어, 완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동사의 공급 방식은 품질 검증과 장애 대응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다만 메타가 3개 공급사의 시료를 검증하고 있어 이러한 강점이 기존 점유율 유지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ACC의 단거리 대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에나에 따르면 1.6T 기준 ACC의 도달거리는 3.5m로 AEC(4.5m)보다 짧지만, 끝단당 전력 소비는 AEC의 약 15% 수준이다. LightCounting은 ACC가 향후 5년 내 액티브 케이블 시장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메타가 AEC를 채택한 3~10m 구간 중 ACC가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FY27 실적을 주도하는 800G AEC의 수요 기반은 유지되겠으나, FY28 이후 1.6T 시장에서는 공급사 점유율과 연결 거리별 제품 경쟁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크레도 테크놀로지 (CRDO US)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백만USD)	FY25	FY26	FY27E	FY28E
매출액	**437**	**1,335**	**2,514**	**3,817**
매출원가	**154**	**427**	**892**	**1,334**
매출총이익	**283**	**908**	**1,622**	**2,483**
영업비용	**245**	**463**	**827**	**999**
영업이익	**38**	**445**	**795**	**1,484**
비영업손익	**18**	**30**	**42**	**75**
세전사업손익	56	475	836	1,559
법인세비용	3	3	35	125
당기순이익	**53**	**472**	**802**	**1,434**
비지배주주순이익	0	0	0	0
지배주주순이익	53	472	802	1,434

Growth & Margins (%)				
매출액증가율	126.3	205.7	88.3	51.8
매출총이익증가율	136.9	221.1	78.6	53.1
영업이익증가율	-204.7	1071.2	78.5	86.8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292.2	790.2	69.7	78.9
매출총이익률	64.8	68.0	64.5	65.1
영업이익률	8.7	33.3	31.6	38.9
지배주주순이익률	12.1	35.4	31.9	37.6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백만USD)	FY25	FY26	FY27E	FY28E
유동자산	**714**	**2,001**	**2,745**	**5,014**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31	1,443	1,702	3,44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62	233	427	649
기타유동자산	120	324	616	924
비유동자산	**96**	**295**	**1,462**	**1,353**
유형자산	79	126	100	50
장기투자자산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7	168	1,363	1,303
자산총계	**809**	**2,296**	**4,208**	**6,367**
유동부채	**108**	**197**	**345**	**52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6	107	223	333
단기금융부채	15	25	25	25
기타유동부채	36	65	97	162
비유동부채	20	35	86	86
장기금융부채	13	21	21	21
기타비유동부채	7	14	65	65
부채총계	**128**	**232**	**431**	**606**
자본금	0	0	0	0
자본잉여금	765	1,672	2,586	3,136
이익잉여금	-83	389	1,191	2,6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2	0	0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682**	**2,064**	**3,777**	**5,760**
부채 및 자본총계	**809**	**2,296**	**4,208**	**6,367**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백만USD)	FY25	FY26	FY27E	FY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65**	**464**	**1,063**	**1,799**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52	472	802	1,434
비현금수익비용가감(감가상각비)	128	208	622	719
운전자본변동	-115	-216	-361	-354
기타영업활동	0	0	0	0
투자활동 현금흐름	**112**	**-253**	**-833**	**-70**
자본적지출	-36	-57	-50	-7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감소)	148	-114	-33	0
기타투자활동	0	-83	-750	0
재무활동 현금흐름	**-8**	**718**	**10**	**10**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4	17	1	0
자본의 증가(감소)	8	743	10	1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30	-43	-1	0
FX rate effect	0	0	0	0
현금의 증가	169	929	239	1,739
기초현금	67	236	1,165	1,404
기말현금	236	1,165	1,404	3,143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FY25	FY26	FY27E	FY28E
P/E (배)	164.8	73.5	37.4	21.4
P/B (배)	12.8	16.8	7.9	5.3
EV/EBITDA (배)	138.9	69.4	31.4	17.0
EPS (USD)	0.29	2.51	4.04	7.06
BPS (USD)	3.76	10.96	19.02	28.38
매출채권회전율 (회)	2.7	5.7	5.9	5.9
재고자산회전율 (회)	1.7	1.7	1.8	1.8
매입채무회전율 (회)	2.7	4.0	4.0	4.0
ROA (%)	6.6	20.6	19.1	22.5
ROE (%)	7.8	22.9	21.2	24.9
ROIC (%)	5.1	21.0	19.9	23.5
부채비율 (%)	18.7	11.2	11.4	10.5
유동비율 (%)	662.5	1015.3	796.2	963.5
순부채비율 (%)	-59.2	-67.7	-43.8	-58.9

자료: 크레도 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